

헌책방 주인의 눈에 비친 독서 풍속도

'나르시스형'에서 '밤손님형'까지 천태만상

헌책방 주인의 눈에 비친 손님들은 천태만상이다. 여기엔 두가지 분류법이 있다. 첫째는 '독서광'과 '마니아'로 나뉜다. 독서광은 읽을 책을 사고 마니아는 소장하거나 되팔 책을 산다. 두번째 분류법은 좀더 세부적이다. 대략 '나르시스형' '산책형' '젠체형' '합리형' '밤손님형' 등으로 나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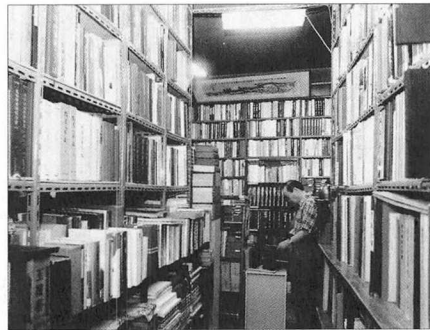
헌책방이 일반 서점과 다른 것은 취급물이 '헌책'이라는 데 있지만은 않다. 헌책방에선 책을 '가솔'로 여기는 주인장과 이 세상 책을 모두 '나의 예비신부'로 착각하는 독서광들의 만남이 있다. 이게 차이점이다. 이 둘은 책과 함께 헌책방의 문화를 형성하는 세 꼭지점을 이룬다.

독서광과 마니아로 분류돼

주인장의 눈에 비친 손님들은 천태만상이다. 여기엔 두가지 분류법이 있다. 첫째는 '독서광'과 '마니아'다. 독서광은 읽을 책을 사고 마니아는 소장하거나 되팔 책을 산다. 두번째 분류법은 좀더 세부적이다. 대략 '나르시스형' '산책형' '젠체형' '합리형' '밤손님형'으로 나뉘볼 수 있다. '나르시스형'은 '활자중독증'이 깊어 글을 읽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이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헌책이란 거울에 비친 자기 삶에 만족한다. 인사동에 위치한 오래된 고서점 '통문관'에 이런 손님들이 많다.

"한두시간에 걸쳐 구경하더니 그냥 나가더군요. 늘 있는 일이라 무심히 넘겼죠. 그런데 정확히 보름 후에 나타나더니 자기가 골라놓은 책들을 바람 같은 속도로 탁탁 뽑아서 오는 거예요. 열권이 넘었는데, 불과 1분도 안 걸렸습니다."

통문관 관장 이종운씨(33)의 말이다. 헌권을 '찍어' 천천히 다 읽고 가는 사람, 다 읽고 가져와 반납하고 다른 책으로 바뀌가는 사람(대신 자기 소장자료를 가끔 제공함), 올 때마다 몽땅이로 사가더니 책방을 열었다고 전화해오는 이



인사동 통문관의 내부 모습.

들이 모두 '나르시스형'에 속한다.

독립문 옆 시장골목에는 말 그대로 '골목서점'이 있다. 여기엔 날마다 들르는 손님이 20명 가량 된다. 이들은 '산책형'들이다. 새로운 책이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기대를 품고 오지만 자기 관심분야가 아닌 책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럴 때 하릴없이 서점을 한바퀴 돌아보며 주인장과 몇마디 나누고 간다. 하도 그러다보니 이곳을 친구와의 약속장소로 활용하기도 한다.

신촌장로교회 맞은편의 '숨어 있는 책'은 이제 생긴 지 1년 반 지났지만, 일주일에 30~40권 이상 사가는 단골고객이 꽤 있다. 대학원 석박사 과정 손님들이 특히 많은데, 이들은 1990년대에 나온 절판본 이문서들을 많이 찾는다. 가장 인기 높은 장르는 역시 소설로 쿤데라, 하루키, 은희경이 인기작가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보니 가끔 세계관이 다른 손님들끼리 충돌하는 경우도 생긴다. 주인장 노동환씨(37)는 그들이 아직은 부담스럽다. "어떤 손님이 가격책정에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짚어줄 때는 고맙기도 하지만, 한

편으론 '이 사람이 또 뭘 이렇게 잘 알고 있냐' 하는 고까움도 든다"고 고백한다. 아무래도 이곳 손님들은 '젠체형'인 듯하다.

알미운 '합리형'과 '밤손님형'

고서, 총서, 영인본, 자료집을 풍부하게 갖춘 연신내 '문화당서고'에는 '합리형'이 많다. 이들은 대부분 대학교수들이다. 지방대 교수들의 경우 주인과 친해진 다음부터는 전화로 원하는 책을 구해달라고 청한다. 그런데 주인 박상우씨(59)는 "돈 앞엔 체면 없다고 교수 가운데 가격을 깎으려드는 사람이 많다"고 슬쩍 불만을 흘린다.

'밤손님형'은 책을 훔치는 경우다. 계획된 범죠행위보다는 충동적일 때가 많다. 연세대 앞 '정은서점'의 정재은씨(57)는 책을 훔치면 표시가 나지만 그냥 둔다고 한다. 대부분 돈없는 학생들이어서 봐준단다. 나중에 솔직히 털어놓고 사죄하는 학생들을 보면 기특한 마음도 생긴다. 진짜 나쁜 것은 자기가 훔쳐간 책을 그 서점에 되팔러 오는 경우로 '파렴치형'이다. 정씨는 그런 이들에게 "주인이 모르리라고 여기면 큰 오산"이라고 경고한다.

홍대 근처 '오거서'의 신봉림씨(55)는 1960년대 책 판권에 오백원 적혔다고, 슬쩍 천원짜리 한장을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인장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분개했다. 신촌 '공씨책방'의 주인장도 "아기엄마들이 동화책을 많이 사가는데 너무 이것저것 많이 따지고, 책값도 깎으려든다"며 그럴 땐 "아기들 과거 한봉지값도 안되는 것을..." 하는 껄뻗한 마음이 치민다고 말했다. 이들은 '암체형'이다.

주인장들은 '싼맛'에 헌책방을 찾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책의 가치가 예전보다 많이 허물어진 느낌이 들어 기분이 울적하다. - 강성민 기자